

한국 교계 현실과 고신의 허실

김 경 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지금 유인물을 나누는 시간이므로 유인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세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주 교안이 되어있는 변하는 교회속에 변치않는 교회, 한국교계의 현실과 고신의 허실이라는 제목의 한장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겠고 그 뒤의 유인물은 한국기독교 평신도 공동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한국 중무 행정 자료라는 것으로 한국기독교계의 중요한 통계를 수록한 것으로 이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두사람에 한장 정도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무행정자료는 많이 카피하지 못했습니다. 주 교안인 변하는 교회속에 변치않는 교회라는 한장 짜리 교안과 '한국기독교 평신도 기독교 선언문', 그외에 잡문으로서 몇가지 칼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담사에 보내는 편지'는 조금 부수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역사의 진로 방해자가 누구냐'하는 칼럼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인물도 역시 참고자료로서 충북대학의 총학생회장 박철용형제가 예수믿고 전혀 불신자인데 기독교의 크리스찬 썬클에 나와서 은혜받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 발표한 full text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될것입니다. 어떤 유인물은 조금 모자랍니다마는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선지학교의 귀한 중들앞에 이 죄인이 섰습니다. 이 부족하고 별수없는 이것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하는 공동 영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주고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시고 듣는 젊은 중들의 마음과 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흔히 말하기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매우 위험한 학문이라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신학에 잘 도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학을 위험한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신학을 잘하면 참 좋은데 신학을 잘못하면 자기 뿐만아니라 자기가 속해있는 공동체에 큰 해독을 끼치기 때문에 이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 꾸준히 이 신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가지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영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소명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대학을 잘 마쳐가지고 신학을 잘 못 선택한 바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또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모씨만 하더라도 그가 만약에 고려신학을 다녔더라면 조금 문제가 달랐지 않겠는가? 어느 신학을 배웠느냐 어느 신학에서 공부를 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에 앞서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백담사에 한번 갔다왔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백담사에 갔다왔다가 약간 냉소적으로 대할지도 모르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백담사에 가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다시피 80년도 언론계에서 27년 4개월동안 봉직하던 언론계에서 밀려나와서 이른바 해직언론인이 되어서 올때 갈데 없어 2.3개월동안 이산 저산 다니면서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나 저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도 전두환 이름만, 전씨만 나와도 소름은 안끼치더라도 별로 유쾌한 존재는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도 저를 동정하는 사람은 전두환이란 말만 들어도 아! 김경래 장로를 내쫓은 아무아무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담사에 간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갈 하등의 명분도 필요도 없지만 예수 믿는 장로다. 예수의 가르침을 그래도 좇아볼려고 귀코리만한 노력을 하는 장로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참 그분 청와대에서 그 연회장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하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화장실에 휴지야 자기가 사용하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하인들이 처리해 주고 할 그런 정도로 좀 호탕한 생활을 해온 사람이 그 개울물을 받아가지고 세수하고 조그마한 방에서 내의 빨아서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아파 가지고 드러 누워 있고, 하루아침에 이러한 꼴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인간으로서 참 처참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에 간 것도 아니고 참 갈데가 없어서 어데가서 그분이 편안하게 쉴수가 있겠는가? 아무

리 생각해도 그 적막 강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제일 낫다. 그 심산유곡에 들어가는것이 제일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기때문에 선택한 것이지 그가 뭐 불교에 입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서 제가 느낀것은 참 이세상에 영화·권세 풀과 같고 그리고 사람이 그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종교를 잘못 선택하게 하는 그 언어 환경과 주위 환경에 살았다고 하는것 이것도 참 불행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내가 우리가 그의 어릴때에 그의 청년때에 그의 장년때 그의 군대생활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침)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하는 말을 몇번하는 것을 듣고, 조금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데 했는데 그러나 아다시피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반성이란 매우 힘듭니다. 어릴때들이란 것은 회초리 한대만대도 즉각 반성을 하고 즉각적으로 하지만도 그쯤되는 사람들에게는 회초리가지고는 좀처럼 반성이 안되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온것은 아닙니다만 신학이라는 학문이 위험한 학문이요 종교선택이란 것이 인생을 좌·우지 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회자 또는 일선에서 종교적인 사역을 하실 여러분들의 그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훌륭한 영적인 권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존환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어냐면 우리가 여행자가 되어서 어떤 도시에 갔을때에 처음으로 갔을때, 그 도시를 한눈으로 살필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냐며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곳에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곳에 올라가서 가령 뉴욕같은데 엠파이어스테이트, 서울같은데 남산에 올라가서 천하대세를 한번 살펴본단 말입니다. 동쪽에는 동대문이 있구나, 아! 남쪽에는 남대문이구나, 북쪽에는 무엇이 있구나, 한강이 저기 흐르고 있구나.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고 난 다음에 서울에 내려와 가지고 보면 아! 내가 위에서 봤던 을지로가 저기에 있구나하고 알 수 있습니다. 뉴욕을 1분만에 볼 수 있지만, 1년가도 뉴욕을 이해못합니다. 엠파이어에 올라가 일본동안에 아 허드슨강이 있고, 센츨럴파크도 있고 아저 뭐있고, 일본동안에 싹해서 일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뉴욕을 일년가도 이해 못하죠. 그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우리의 처해있는 선교환경, 또 고신의 위상을 바라볼때에 먼저 고도 오만피드, 십만피드위의 상공에 올라가서 북경도, 동경도, 서울도, 뉴욕도, 평양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한번 조감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대의 생존환경을 조감해 볼때 우선 이 지구상에 살고있는 사람들. 몸부림치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시화 현상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백만이상을 수용하는 도시가 305가 있다고 로마그룹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2005년에서 10년쯤되면 전세계의 약 80%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물론 미래학자들과 그밖에 통계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도 이대로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 걸어왔던 추세를 보았을 때 이것이 상당히 접근된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추세에 따라서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의 총회에서 농어촌 전도부라 하는 전도부는 해마다 그 소리가 약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회, 도시특별전도 봉사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를 향해서 도시에 그 굵구린 영혼들을 상대로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선교의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특징을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촌 지구촌해서 Groval Village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구촌 자체도 역시 축소된다 말입니다. 지구촌만해도 적는데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축소한건데 그것을 더 축소해서 그 지구촌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손바닥위에 지구가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손바닥위에서 조그만 보던만 누르면 말이지 뉴욕의 TV화면이 탁 나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선택할만한 프로그램, 가령 화면에 채널 12의 프로가 참 좋다 해가지고 그런 TV 가이드북이 말이지, 전화번호 책만치 두꺼운 가이드북이 전세계적으로 국제화되어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 TV국에서 키스레이션에서 발사하고 있는 전파의 모든 목록이 말이지 모든 카타록이 전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일년에 한번 나오는 연간의 아닐거예요. 한달에 한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일주일에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갖다가 책으로 만드는 프린트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단말기에 집어 넣어서 탁 놀리면 아! 지금 벨지움에서는 무슨 프로가 있고 말이지, 독일에서는 백림썬포니오케스트라가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볼까? KBS집어 치위라 보턴을 탁하면 백림썬포니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시대라 말입니다. 지구촌의 축소라는 것은 이와좋은 모양이에요. 예! 이 꿈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도 그저 사실은 꿈같은 소리가 아니예요.(웃음) 또 그리고 통신(기침) 저도 이번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세계 기독교실업인회 제4차 대회에 갔다왔습니다. 한국대표 42명을 이끌고 밴쿠버에 가 가지고 그 다음에 L.A에 한번 돌고 왔습니다만도 밴쿠버에 있으면서 서울에 노상 전화를 했습니다. 예! 밴쿠버에 내가 유숙하고 있는 국제 회의당에 속해 있는 내방에서 내방에 있는 전화를 통해서 가지고 탁탁눌러

011-8-2 놀리고 하니가 우리집이 나와요(웃음) 거 꿈같은 이야기지요. 앞으로 10년후만 되면 여러분 광통신이라는 것이 어떤건지 아십니까? 광통신 시대가 따라오게 되면 말이지 이제는 시내·시외·국제전화하는 그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시외전화 얼마 했다. DDD 얼마했다 하는 이런 말이 아주 새마을스러워요.(웃음)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마을스럽다 하니가 팍웃네!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다음 운동 변혁의 과속이라 이렇게 했는데 유동 그 물량의 유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어저께 부산에서 합판을 만드는 회사의 장장이 올라왔어요. 잘 아는 친군데 합판 공장은 부산에 놔두고 장사는 서울 그러니까 추풍령 이북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공장은 부산에 있는데 주판 매소는 추풍령 이북이란 말이지! 왜 그러냐? 하니가 주문 받으면 바로 담프트럭에 담아 밤새도록 간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야 공장의 입지조건은 선택할 때에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은도 지금 그러한 물량 이동하는데 간단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집사님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무보수 13년동안 교회창립후 오늘날 까지 한푼도 보수를 드린일 없고 연말에 양말 몇켢레 사드리는 이런것밖에 없는데 우리교회 성가대는 다 무보수입니다. 반주고 지휘고 다 무보수예요! 예!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가발공장을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가발을 파는 바이어들은 어디있느냐면 한국은 불과 1/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구라파·미국으로 다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물량 이동이라는 것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물질뿐 아니라 그 정신적인 유산의 이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슨 학설이 하나 나왔다 뭐 어떤 이데올로기가, 무슨 학설이 나왔다가 할때도 세미나에서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일만 하면 그것이 의식화되어가지고 어떤 그룹에서 받아들여 의식화되어지는 이행. 이동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만보니까 참 이상해요. 이 좌익은 우익화되고 우익은 좌익화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자꾸 사회주의로 나갈려고 애를 쓰고,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분출하려고 애쓰고,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는 자꾸 민주화하려고 애쓰고 말이지 이상하게 교차압력 상태에 있는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 여행하는 동안에 매일밤마다 TV만 틀면 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화염병 던지는 뉴스가 말이야 거꾸 전경들이 거머, 검정마리아 16세기에 무슨 이상한것들 가지고 서 있는 그런것들이 매일밤 나와요. 아 그러니까 외국대표들 많이 와 있고 한때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장에 나가면 간밤에 뉴스를 보고 온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한국보

고 괜찮느냐 자주 이렇게 묻거든요. It's all right, it's all right하면서 말이 지 그래서 내가 뭐라 하겠어요. I don't know 웬 absolutely heavenly God know 하나님은 아시겠지 나도 모르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괜찮느냐고 어젯밤에 더 심하던데 괜찮느냐고 막 대한민국이 꺼져나가는 것 같이 굉장히 외국 대표들은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굉장히 sympathy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괜찮느냐? 아이들은 괜찮느냐? (웃음) 여러분 TV 화면을 본 사람은요 향후 1주일 이내에 대한민국이 꺼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시리지게 나옵니다. TV라는 것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말이죠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층에서 구경하는 학생들 데이트하는 학생들, 잔디에 앉아서 책보는 학생들은 비추지 않고 아주 침예하게 보이는 것만 뽑아가고 보도하니까 굉장히 심각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는 4월6일~7일 쯤 되니까 그거 싹없어져요. 무엇으로 대치 되었나니까 천안문하고 대치되었어요. 천안문하고 중공사태가 있는 후 부터 캐나다, 미국에 APC, NBC TV에 한국문제는 언제 그랬는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거참 하나님은 참 기묘한 방법으로 말이야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국이 지금 위급하다 엉망진창이다. 한국 상품 사지말자. 여행하지 말자. 관광객들도, 상품도... 그런데 중국사람들과 대학생들이 한국을 위해서 감사하게 데모를 하는데 말이지 (웃음) 그러니까 TV에 뉴스가 싹 대치되어 가지고 원래 뉴스라는것은 뉴스 Value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제일 큰 뉴스가 뭐냐 그것은 뉴스란 판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웃음) 뉴스라는 것은 News N-North, E-East, W-West, S-South 동서남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가운데 자기나라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데 자기나라와 가장 밀접한 다시말해서 영향력 있고 관계가 있는 그것을 선택의 제일로 삼습니다. 아시겠어요? 뉴스를 제작하고 뉴스를 편집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그 땅 다시말하면 keystation 그 땅과 가장 연관성있고 영향력있고 관련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뉴스배열의 제일로 보고 그 다음 2,3,4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뉴스가 캐나다,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뉴스이기는 하지마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첫째 십일억의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하고의 식량전쟁 상호교전국입니다. 중국이 식량을 제대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곡물시장과 캐나다의 곡물시장은 망해버립니다. 또 중국이라는 것은 미국의 지금 남아있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든 노하우를 그래도 비싼값으로 팔아 먹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노하우를 사지 않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사준다 이말이야. 그런 때문에 곡물시장인 동시에 전략적인 소련의 남진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안보적인 그

런 요충지입니다.

그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중국에서 무슨 사건이 났다 할때에 자기나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이와같이 유동과 변혁의 과속으로 인해서 뭐 이런 시각은 순수, 객관, 독립적인 그런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도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현대의 생존환경을 조성하는 요소가운데 하나다.

한민족의 생존환경은 어떠냐? 여러가지 측면에는 볼 수 있지만은도 우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것은 삼척동자도 알뿐 아니라 적어도 각 나라의 국정 교과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지구상의 많은 인구가운데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안에도 있고 불란서에도 있고 이미 통일된지 아는 사람도 있고 전쟁후에 월남같이 되었거나 또는 마닐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아직도 155마일로 끊기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요. 한국 문제에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코리아이슈라고 해 가지고 한국 분단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코리아 이슈라 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문제를 다룰때 분단국의 특수성이라는 이것을 배 버리면 결론이 안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정치문제를 토론히든 토의해 보십시오. 결론은 38선에서 부딪힙니다. 한국의 경제 문제를 토론히든 마지막 결론은 155마일에서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이 선이 있기 때문에 한계선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비극인 동시에 현실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선 한국의 생존 환경에 있어서 분단성이라는것은 절대적인 것이예요. 이 분단선만 없으면 택시파업이고 뭐 노조고 학원이고 이데올로기고 다 종단 말이에요. 분단선! 이것 때문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제가 어떤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마는도 오대풍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오대풍! 다섯가지 바람! 마치 요나가 맞이한 바람. 풍랑인데, 그 풍랑보다도 더 복합적인 그런 바람을 지금 쏘이고 있단 이말이야. 그 첫째바람이 민주화 바람이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에 대해서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화바람. 거센 민주화 바람이 86, 87년 그 앞서서부터 8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민주화 바람이 막 불어오다가 미풍으로 불어오다가 강풍으로 불어오다가 이제 폭풍으로 지금 질풍으로 불어와요. 민주화 바람이 지금 거세게 교회안에도 민주화 바람이 들어와요. 학교는 말 할것도 아니고 내가정 우리집에도 민주화 바람이 들어서 아버지 독재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민주화 바람이 어떻게 많이 들어

왔는지 말아야! 각계에 들어와서 민주화 바람을 도의시키고 한국문제를 논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민주화바람? 이 바람 잘 맞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잘못 맞아 놓으면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회도 문제가 있는 바람입니다. 이 민주화 바람, 들쭉 바람이 뭐냐하면 돈바람 이에요. 경제풍이란 거죠 86년도 부터 흑자경제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무역수지에 우리의 흑자가 86년부터 이른바 3저 현상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돈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 저금통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디다 투자할까 이돈을 어떻게 좀 쓰고 남은 다시말해서 잉여가치가 여러 측면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돈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 돈바람을 타고 온갖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향락산업은 말할것도 없고 돈으로 인해가지고 투기 그래서 새로운 우상으로 이 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돈바람이 교회안에도 여지없이 들어왔어요. 우리집에도 들어왔어요. 세벳돈 천원주면 그 애들이 어디서 돈바람 맞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천원이 무엇입니까? (웃음) 아 이런식에 이것도 돈 바람이에요. 아버지가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게 우리 전통사회의 그러한 가치관인데 아버지 천원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에 쓰셨습니까 이런식에, 우리애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돈바람이 가정에도 들어왔다 이말이에요. 교회에 돈바람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예, 그바람을 일으킨 장본인 가운데 한사람을 제가 만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이 돈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부흥사들이 헌금하라해도 헌금이 안나오네요 그 다음에 세번째 바람이 무슨 바람이나? 우리한국에 불어왔던 올림픽 바람입니다. 80년대초 바덴바덴에서부터 일어난 그 올림픽 바람이 8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드디어 8년 일어났는데 이 올림픽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영어하나만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제2외국어로 뻗어나가는 동기를 올림픽이 제공했고 또 국제무대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외국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유락시설과 숙박시설과 그리고 모든 교통 통신 수단 등이 올림픽이 얼마나 가속화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도 제가 생각해 보니 올림픽이 몇년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기는 한것 같은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막 다른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다른 바람들이 올림픽 바람을 몰아 버렸어요. 몰아내고 up set했던 말이에요. 완전히 upset down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이 그 한국 역사상에 올림픽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언젠지 잘 모르겠다. 아주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거리고 올림픽이 지나갔어요.

또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지금은요 구라파에서나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나 다른데서는 손에손잡고라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 한국에만 안불려요. 이상하지. (웃음) 참 이상한 현상이예요. 손에 손잡고 하는 노래에 다른 나라에서는 가끔가다 부르는데 말이지 어디 뭐 레스토랑에가도 있고 심지어 TV방송국에도 뭐 프로할때 광고로 이용해가지고 광고에 MC로 나오는데 아 이거 한국에 오니까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들을 수도 없고 그에 대한 무엇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한 민족인가 이렇게 전망증이 심한 민족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 올림픽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한국에 생존환경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바람은 이 서북풍이란 거죠 서쪽으로 북쪽으로 나가자 하는 바람. 그래서 북방정책이라는 것이 나왔지만도 그러나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서북풍이 불어서 정주영이가 평양으로 간다 뭐 누구누구가 모스크바로 간다 뭐 레닌그라드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온다 모스크바의 무엇이 온다 백조의호수 뭐 와서 공연한다 갑자기! 아마 모르는게 하지만은도 이 서북풍으로 인해가지고 재미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재미 못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투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투자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부터 신용을 잃은 기업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풍 바람에 KGB요원들이 한반도에 많이 깔려가지고 목포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흩어가지고 전부 흩어가지고 판문점에까지 한반도를 전부다 촬영을 해서 살살이 뒤져가지고 한국에 정체가 이거다 해서 김일성에게 한 컷트 주어가지고는 당신 조금만 참으면 얼마후에 진수성찬하게 되니까 조금 참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한국하고 교류를 할테니 가만 있으라고 북한은 달래는 자료로 삼을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련에 무역대표가 생기고 헝가리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이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막스 레닌주의에 포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서북풍이란것은 우리의 생존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바람은 이로 인해서 생겨난 국제화 바람입니다. 국제화 바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가서 목회자가 되더라도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말을 하시겠지만도 제2, 제3외국어 정도는 하셔야 성도들하고 대화가 될것입니다. 또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이 반드시 한국사람들만 모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주일날에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올수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올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의 요소가 그런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제화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교회구성원이 순수한 백의민족만 가지고 교회구성원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아 국제화가 교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감각 diplomatical sense? 또 하나는 국제적인 의미 international mindness 그러니까 diplomatical sense 그리고 international mindness 이 두가지를 동시에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적어도 한 두서너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조금 폭 넓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국제화 바람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바람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우리 한 국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라고 선교에 도움이 되라고 말이지 이 바람들이 일어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가지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것을 선교에 활용을 하고 선교하는데에 이것을 몰았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지 그외 다른데에 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명상하는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선교하는데 필요한 정치적인, 그러한 행정적이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주화시키고, 선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바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땅 끝까지 나가서 선교를 해야되는데 선교대상국이 어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자기 돈 가지고 자기발 가지고 한국에 오게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오게해서 우리 선교대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것이 올림픽 아니냐 말이야 또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공산권의 기도 뭐 교회가 서게해 주십시오. 북한의 기도가 교회가 서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교회가 서고 있다 말이야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직접들었습니다. 평양에 선 봉수교회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시각이 좀 구구합니다만는도 제가 만난 황규빈씨라고 피터 황이라고 우리나라 교포기업가로서 미국의 500대 기업가운데 끼이는 큰 사업잡니다. 피터 황이라고 산호세에 있는 집사님이세요. 텔레-비디오 사장인데 이분하고 저하고 그 장거리 전화를 한 30분 하고, 한번은 한 5분동안 하고 한번은 한 30분동안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평양의 봉수교회를 3년반전에 자기가 평양에 갔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아버지 수령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 좌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자기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다 교회가 있는데 공산권에도 교회가 있고, 헝가리에도 교회가 있고, 체코 슬로바키아도 교회가 있고 이 사회주의 국가들에 다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조국에는 말이야 아버지 수령이 통치하고 있는 이북 북반부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하나는 꼭 세우십시오! 하니까 거 교회세우면 안되 안되하면서 아편이고 무엇이고 막 이야기 하더라요.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이 황 규빈씨가 필요해요. 이 황 규빈씨의 텔레-코뮤니케이션 이거 비디오 컴

퓨터 회산데 남한 출신이라하지만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 도입해가지고 삼성전자, 금성전자, 대우전자를 능가할 수 있는 공장을 갖다가 원산에 세우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사람데로 뛰냐하면 참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예요. 이 사람은 선교적인 꿈이 있기때문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하나 세운다하는 전제하에서 자기하고 같이 뭐 일좀해 봅시다 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북한에 공장을 자기와 같은 그런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년동안에 연구가 필요하다했더니 김일성이 있다가 거 어떻게 3개월정도로 단축할 수 없느냐? 거 안된다 말이야. 시장조사, 입지조사 다하면 한 3년 걸린다 말이야 그안에 자기가 자주 올테니까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가야 하는데 교회를 하나 세우십시오. 그래서 자기하고 김일성이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면 자기가 미국에서 돈을 보내주겠다해서 20만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 한사람이 그리고 이어서 제2봉수교회, 제3봉수교회 원산, 신의주 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을 자기하고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 아버지 수령 그 사람이 말이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이야 어 교회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십자가도 바깥에 안붙이고 안에만 붙이고 어 그 사람이 거 이상하다고 말이야 응이 다음에 자기가 평양에 가면 항의하겠다고 말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평양에 교회가 섰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나는 긍정적을 봅니다. 왜냐 자기들이 전시용으로 세웠건 성경 찬송 부르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정치보위부에서 또는 어떤 감시원들이 와 가지고 그저 차출해온 교인들이 와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찬송부르는 가운데 성경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동안 남한에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해 왔지 않느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무엇이 생길때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가짜교회가 서야지(웃음) 가짜가 먼저 서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가 전파해야지 처음부터 훌륭한 교회가 되고 부산 삼일교회가 바로 평양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환상이죠. 처음에 설때는 공산당에서 움터서 나오면서 공산당 비슷하면서 이상한 교회가 가짜 비슷한 교회가 슬 생기면서 그것이 점점 탈피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때문에 지금 평양에 서고 있는 그 교회가 비록 그것이 선전용 교회라 할 지라도 어쨌든 그런 교회가 하나 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그 교회가 제2, 제3, 제4봉수교회로 확장되어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그 교회에서 예배보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LA 있는 어떤 장로님에게서 한계를 받아왔지만서도 교인들이 심각하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부인 어떤 자매님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아요. 그 왜 그랬을까?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응, 노상 눈물을 닦아요. 그러니 그가 당성이 강해가지고 아버지 수령에게 충성을 다한다해서 일단 이 선전용 교회에 불러왔지만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 찬송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눈물이 함부로 나오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도 쉬운게 아니야, 찬송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눈물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조용히 말이지 기도할 때 조용히 남 안보게 눈물을 닦고 집어 넣어요. 봐요! 그거를 보면 저 눈물은 감시받고 있는 눈물이다 말이야. 감시받는 상황속에서 말이야 응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값진 눈물이나 말이야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겠느냐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운동력이 강한것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 도둑놈 얘기 잘 알지요 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가 가지고 거 어떤 교회의 장로님 회감잔치에 가 가지고 성경은 펴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런 사연이 있는 성경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봉독했어요 나는 도둑놈이었습시다. 내가 20대에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 갔는데 심야에 담을 넘어 가서 자루에다가 그집에 있는 것 마구 쪼어와서 자기집에 와서 퍼 봤어요. 무엇을 훔쳤는가 해 보니까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신발도 있는데 근데 성경책 하나가 탁 나왔더라 말이야 20대 청년이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거 뭐냐 이것을 펴보는 가운데 정말 참 극적이예요. 성경을 펴는 가운데 무슨 말이 나왔느냐며는 “도둑질을 하는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웃음)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 이 성경 이책 이상한 도둑놈에게도 이거(웃음) 도둑질하는 자에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일을 하라. 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부딪쳐서 회개해서 그리고 자기가 훔쳐온 것은 도로 자루에 집어 넣어가 가지고 그집에 담을 넘겨 그 며칠뒤에 거의 그 시간이 되어 가지고 그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 한편만 빼고 다른 것은 다 돌려주고 성경한편만 거 이상한 책이다 해가지고 빼놓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해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2,30년후에 어떤 임지에서 장로님의 회감년에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할아버지 내외한분이 훌쩍훌쩍 운다이야. 저 뒤에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있는 장로님이 걸어오면서 아! 목사님! 그날밤 도둑놈이 목사님

이십니까? 자기 집에서 잃어버린(웃음) 성경이란 말이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극적인 해후예요. (웃음) 장로님 그때 잃어 버린 그 성경이 장로님 성경입니까? 부등켜 안고 말이야,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말씀이라는 것이 운동력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대구에 화원교도소에 가면 김영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웃음) 김영준이라는 학생이 누구 있어요? (웃음) 이거 참 이상하네(일동 웃음) 예? 김영준이야, 김영준 김영준이란 학생이 있어요 그가 전과 4범이요, 살인강도로 사형선도를 받았습시다. 사형선도를 받고 사형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드온 협회 회원들이 그 화원 교도소에 가서 기드온 성경을 넣어 줍니다. 넣어주면 내어 던집니다. 며칠후에 죽을놈이 말이야 무슨 성경이나 내어 던집니다. 또 줍니다. 또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몇번 시도를 하다가 무슨 책임데 자꾸 주느냐고 귀찮아서 한번 읽어봐요. 귀찮아서 한번 읽어 본거야 성경은 귀찮아서 읽어 보는 수도 있어요. 에이 더러워! 아니꼽고 더러워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을수도 있어요. 읽는 가운데 그 청년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쳐서 십자가의 달린 그 강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인정하면서 그의 낙원에 인도함을 받은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 김영준이라는 학생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이야 교도소에 오는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성경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얼굴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감방 저감방 다니면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야 이새끼들아 예수믿어! (웃음) 사형수가요 거 교도소안에서는 사형수의 말이 제일 끝말이 새답니다. 얼마후에 죽을 사람들이니까 야 밤가져와 하면 밤가져오고 말이야 응 야 껌가져와 하나가 안되 두개 세개 곧 죽을 사람들이니까 한꺼번에 4개씩 씹는데요. 나는 왜 껌을 한꺼번에 씹느냐니까 얼마후에 죽을 사람들이니까? 한꺼번에 씹자는 거예요. 이런 심정이 이것은 사형수의 심정이란 겁니다. 그 사형수가 예수믿고 전도를 시작하니까 말이요 얼마나 화원교도소 안에서는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소식이 우리 기드온 협회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드온 협회에서 기드온협회 회원 760명이 연기명으로 1978년입니다. 연기명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기타반주에 맞추어가고 돌아가신 분에게 말이지(웃음) 여러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웃어요. 사람이 죽어도 말이지 기타반주에 맞추어 가지고 총맛아 죽은 사람 참 처음보았지 않습니까? 풍악속에서 돌아가신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가 78년 2월이라 생각합니다. 2월인지 3월인지 잘 그때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각하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각하! 하고 주-육 쓰다가 교도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폐인들을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형수 김영준은 이 성경을

읽고 돌이켜서 새사람이 되었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안에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제하고 있고 정말 참 이렇게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꼭 죽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자비를 베풀어서 이 청년이 한번 이 사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썼어요 써서 기드온 750여명의 회원들이 전부 연기명해서 도장을 다 찍어서 부산 대구 광주 각 기드온 캠프에 있는 다 돌려가지고 사발통 돌려가지고 연기명을 해가지고 창와대에다 냈습니다. 냈더니, 물론 내면서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해서 이거 술한 문서를 받아보는 대통령인데 비서 손을 거쳐서 그 편지가 대통령의 책상위에 없게 해 주십시오 말이야. 응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루는 저에게 유희근이라는 정부 수석비서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경래 선생님, 물어보겠다고 그분은 언론계 내 '후배입니다만은도 대통령에게 편지 낸거 있죠' '있다고' 말이야 대통령각 하께서 그 편지를 주-옥 다 읽으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지 확인 해가지고 사실인것 같으면 선처하는 방법을 연구하라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전을 부쳐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으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해에 8월15일 김영준은 감형 되었습니다. 사형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무기가 되었습니다. 무기로 지금 감형되어 가지고 지금 대구 화원교도소에 있는데 통신성경학교 졸업하고 뭐 해서 굉장히 지금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대구에 화원 교도소에 관계되어 있는분이 있으면 김영준군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지금은 그가 나이가 아마 꽤 되었을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이북땅에 성경이 배포되어 있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지하에서 후미진 골짜기에서 이 성경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반도에 그 북한에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은 이와같이 5가지 바람에 소용돌이 치면서 궁극적으로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을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이바람이 풍랑속에서 배 밑창에 자고 있는 한국교회 한국성도가 있다면 이것은 요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지금도 자고있는 사람이 있지만(웃음) 그런데 제가 다른것은 몰라도 지금 자고있는 사람의 이름은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제가 조금기억해 두었다가 이 다음에 다른 모임이 있을때 제가 그 이름을 좀 인용해야 되겠습니까. (웃음) 이제 그분 이름이 뭡니까? 이제 그 형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기에 저렇게 갈수가 있느냐 말이예요 난 저런 용기와 저와같은 숙면상태에 있는 분을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학생회장께서 저분의 이름을 제게 적어 주시면 저하고 앞으로 더욱 친선을 도모할 수 있

도록(웃음) 왜냐하면 앞에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못났기에 너 말 안듣겠다 하며 자는 그 용기 나는 오히려 저런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조금 껴짜가 되어서요

자!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북한에는 어떠한 한마디로 이야기 하겠어요. 북한의 생존환경을 여러 문물과 여러 정보와 여러 가지를 종합해봐 가지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동토, 해방전의 고요, 팡팡 얼어붙어 있는 그 동토가 전야의 그 고요함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북한을 감돌고 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면서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수도서울에서 만약 영등포나 저 말죽거리에서 비자 내놓으라고 하면 아마 큰일 날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평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그만큼 얼어붙은 거예요. 체제가 얼어붙어있고 모든 편이 얼어 붙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얼어붙어 있는 그 동토를 녹이기 위해서 온갖 나라에서 방향에서 온갖 사람들이 기도로 또는 선교로 또는 문서로 또는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 민주화의 바람으로 그 동토를 녹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녹기 시작하는 징후가 많이 보입니다. 그 동토가 녹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참 놀라운 현상이 일어 날거예요.

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도 이런 정도로 이야기 하고 이제 현대의 선교 환경에 대해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3.교전하는 고신교단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좀 시디칼하다고 해가지고 제아내가 어제밤에 머리맡에 놓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보 다른것은 다 모르지만도 맨 마지막에 고전하는 고신교단이라는 그 타이틀, 여보 그런말 쓰지 마시라고 그래 고치라고 하는데 이미 고칠 시간이 없어요. (웃음)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다시 타이프해서 다시 해야 할텐데 그러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 아침에 7시 30분에 출발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고치지 않고 왔습니다.

현대 선교환경에 대해 여러분에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뭐니뭐니 해도 첫째는 직접선교에서 간접선교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입니다. 설교사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평신도의 선교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각 교회 평신도들을 깨우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평신도란 것은 무어냐 우선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또는 엔지니어 또는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또는 특파원 또는 농구코치라든가 또는 태권도 코치라든가 각 전문 실업인과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레이맨(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내보내는 선교시대가 왔다 이말이죠 그래서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

에 통계는 확실히 안나왔습니다만도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인간이 손과 머리를 움직여 가지고 돈을 취득하는 직종이 이만 사천 팔백여종이 됩니다. 2, 4, 8 아주 기억하기 좋습니다. 이만 사천 팔백여종의 직종이 있다는 겁니다. 직업의 종류가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4차분류 해가지고 한 사십몇차분류로 다해보면 뭐 1차산업에서 2차산업 3차산업 4차산업 주-육다 해보고 이리저리해보고 전부 다해보면 우리 인간이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드는 것이 전부 그 직업의 종류가 이만사천팔백여종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체국에서 스탬프 탁탁 찍는 이것도 하나의 직종으로 분류합니다. 다른것 하지아니하고 밥먹고 우체국에가서 이것만하는것 스탬프만 찍는것 이것도 하나의 직종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류하자면 우리 한국에도 상당한 직종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옛날에는 농사짓고, 풀베고, 고기잡고, 아주 직종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후진국에가면 갈수록 선교사 목사입국에 대해서는 탐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그 전통 종교를 갖고 있거나 모슬렘국가들 그밖에 불교국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조금 쎄들하죠 그러나 이 모슬렘국가에서는 박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교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대전 직후에 8개국이던 모슬렘국가가 지금 현재 45개국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모슬렘국이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슬렘국가일찌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들게 되니까 의사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또 교육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엔지니어가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런 때문에 선교사, 정작 선교사는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교사, 의사, 간호사, 기술자 이런분들을 훈련시켜서 보낸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아세아 지역에는 이러한 간접선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선교사 사역 중심권의 이전이란것 이것은 상식이니까 그저 서양에서 한국으로 선교적 사명이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물포의 그 부둣가에다가 한국기독교선교 기념탑을 크게 세워가지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내외간이 성경을 들고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상징한 동상과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천에 한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맥아더 동상, 맥아더 공원만이 인천의 명물인데 이제는 맥아더 공원보다도 이 선교기념탑이 인천한복판에 있어요. 바로 부둣가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뭐냐 하면 저게 저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 양화전에 한국 기념관을 크게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선교에 대한 모든 자료와 그밖에 모든 것을 수록을 해서 했는데 선교 기념관이 서있는 4천5백평 그 큰 동산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넘어져있는 묘비를 세우고하여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선교사의 story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 미국 보스톤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을 향해 출발해 올때 샌프란시스코 항구까지 따라와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지말라 기왕갈려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니까. 전기 수도도 없었고 다치면 된장을 호박잎에 싸서 붙이고, 병에 걸리면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하고 했습니다. 그런나라에 서양의 청년들이 왔어요. 환영하는 자도 없고 오히려 땅에 내리자마자 펄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나누어주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그렇다치고 그 선교 기념관 동산에는 1살, 2살짜리 아이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에 있으면서 안죽었을 것인데 한국에 와서 치료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위에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고신의 여러분에게 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생각할 때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입니다. 한국에는 선교사들은 20대 중반, 30대 초반의 아랫따운 청년들이 왔습니다. 고신 교단에 나간 선교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 한국에는 선교사들 보다는 낫겠죠. 요즘 선교사 가운데는 선교사업가가 많습니다. 선교한담시고 복음을 파는지 교파를 파는지 지식을 파는지 몰라도 순수한 복음을 그 나라의문화에 이식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중심권은 한국으로 이양되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가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며 이 쫓대를 탄곳으로 옮길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째는 지도자의 부족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의 현상에서 두드러집니다만은 옛날의 지도자는 목사가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외국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할 수 있었고 해외유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동안에 우리의 man power는 전멸에 가까울 정도로 막혀있었는데 그래도 선교에 종사하는 결과 목사님들은 신학문도 많이 접했고 국제화의 소식도 복음도 많이 연구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Reader로서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극도로 발달된 정치적 사회와 목사님들이 접하는 학문은 제한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목매한 불악무식한 대중들이 아닙니다. 많은 학문과 소양을 쌓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환경과 교회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많은 영력과 더 많은 지식과 소양을 쌓은 Reader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리더가 많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빈곤 현상이 얼마나 심한가하면 교회에서 하기 수양회를 한다할 때 강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교단보다 없으니까 다른 교단보고 거기도 없으니까 외국을 봅니다. 이것은 지도

자 양성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게을리 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재 신학의 변질이 심하다고 하는것은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도 선한 교훈에 착념된 사람은 적어지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군복음화 사무실이 있는데 이사장을 물러가라고 그 이사장이 문원식목사님인데 장신대 학생들이 머리띠를 하고 우리 사무실 옆에서 농성을 했어요. 온 벽에 대자보를 붙이고 하여 하루는 너무 보기가 싫어 몇장을 떼었어요. 그랬더니 대표자가 물려와서 목사님 이럴수가 있습니까 왜 떼었습니까? 나는 목사아니다. 이리좀 앉아라 반말을 했어요. 여학생도 있어요. 눈이 짝 짝진 여학생인데 (웃음) 그래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적어도 신학생들이 쓴 대자보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좋지않겠나 이것이 모두 마귀의 언어지 성경적 용어나? 너희들이 쓴 글중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글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것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서 찢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없어요.

내가 언론 통폐합때 강제 해직된후 한 2,3개월간 서울 근방에 있는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다녀 보았어요. 그런데 참 엉터리 기도원이 많아요. 2,3개월동안 할일 없으니까 여러분 실업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좋아도 일주일 이주일 되어 보세요 그래서 신문사 편집국장할 때 받았던 책들 공짜로 얻은 책들 한번도 읽어보지않고 잘 썼다 잘 썼다고 거짓말 했는데 (웃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논문집 책들 잡지 모아가지고 산에 갑니다. 성경한권과 잡서들, 성경외에는 어떤것은 논문도 다 잡서요 그 래 기도원에 갈때 나와같이 목달라간 친구 연락해서 여러 기도원에 다녔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나하고 같이 다녀서 예수 믿는 친구를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웃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전도하셔요 (웃음) 신문사 편집국장이든 사회부장 이런 사람들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인가 봐요. 이산 저산 다니면서 여러가지 경험했습니다. 한얼산 기도원에서 이천석목사가 방언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소나무를 붙잡고 달달달해도 방언이 안나와요 (웃음) 그래서 이곳도 있을 곳이 못되거나 했는데 그래도 밥도 좋고 (웃음)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숨어살기 좋고 이미 얻어 놓은 방도 괜찮고 해서 좀더 있었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라 했어요. 나는 방언하는 사람 말리는 일에 사흘동안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나중에 이천석 목사의 귀에 들어가서 나를 만났는데 아 김경래장르요 하더니 아 방언안해도 괜찮다 (웃음) 하는 것이예요. 자기하고 안다고 방언안해도 괜찮대요. 하여튼 실업자가 되어 2,3개월 다니면서 본 것 많아요. 정신병자라고 몽둥이를 가지고 때고 했어요. TV에서 한번 문제있는 기도

원이 방영되적이 있었지요. 우리가 TV사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다 정보를 제공한 것이예요. (웃음) 저가 왜 이런말을 하느냐하면 한국교회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신학이 변질되고 복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계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 우선 저는 첫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로님이 제시한 10가지 과제)

- 1) 공산화방지.....통일문제, 좌익민중 무장혁명 세력의 침투확산, 의식화에 복음의식
- 2) 사이버 집단대책.....문선명, 박태선
- 3) 토속, 신흥, 무속 종교의 침투방지.....단군신전, 사신우상숭배 풍조
- 4) 교회학교의 속화문제.....미션스쿨, 중·고교, 대학의 변질
- 5) 교회연합 협동체제의 재건.....KNCC, 개신교단, 보수교단
- 6) 자체정화 권징기능 회복.....불량성직자, 장로, 집사의 세속 계급화
- 7) 사회정의, 윤리실천력 운동.....기독교의 기존 이미지 상실
- 8) 교회난립, 교파분립, 지양.....냉소대상 요인 제거
- 9) 국제화에의 부응.....세계교회와의 제휴
- 10) 기독교적 현실참여 지향.....복음주의 연합선교 시대

한국의 당면문제는 공산화 방지입니다. 통일문제 무장혁명세력의 침투확산,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있다면 복음세력입니다. 한국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7대세력이 있는데 군사세력, 노동세력, 학생세력, 여성세력, 과학 기술 세력, 관료세력, 그리고 종교세력이 있습니다. 이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7대세력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기독교 세력입니다. 1000만인지 800만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기독교 세력만이 의식화 세력을 대항할 수 있는 Counter partner입니다. 왜냐하면 의식화에 대해서는 반의식화. 왜 자기들도 책을 많이 읽어서 의식화 되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의식화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수요일, 주일에배 모여서 그룹토의하죠. 성경공부하죠 그래서 의식화되어 있는 세력이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의식화되어 있는 세력과 종교적으로 의식화되어 있는 이 세력이 최후의 결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사회주의화가 된다면 그 책임은 종교세력의 자체붕괴에서 무의식에서 무사안일 또는 현실도피에서 또는 투쟁거부에서 왔다고 史家は 기록할 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부패하고 그나라 종교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 복음주의 세력이 쇠퇴하면 그 사회가 쇠퇴한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기 때문에 한국 민족의 운명은 바로 기독교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계각국에서 오신 분들과

주요받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것이 서울이 사이공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과 서울이 마닐라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마닐라와 같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내전상태의 계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피폐하고, 자원은 고갈되고 마닐라가 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닐라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작년에 갔을 때 마닐라의 몰락이 눈에 보여요. 쓰레기, 거지, 노후한 건물…… 마닐라 시내에서는 총성, 마닐라 호텔이 살벌해요. 한국에 어떤분이 사이공화 되어도 통일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사이공에서 도피해서 boet people로 이민해온 사람들을 볼 때 한국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홍콩이 상하이가 우리를 받아 주겠는가? 한국이 boet people이 되면 우리를 받아 줄 사람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앗시리아의 말발굽에 밟히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서울이 사이공이 될수도 있고 마닐라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M16을 파출소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생각한것은 그것은 운동권과 좌익세력에 무기를 공급해 주는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파출소앞을 지나갈 때 두려움을 줌 가졌읍니다. 그러나 요즘은 파출소 앞을 지나갈때 공권력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나갑니다. 파출소가 견제하지 못하면 안방이 견제하지 못하고 경찰서가 견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견제하지 못합니다. 인기가 없는 정부라도 그 정부가 견제하지 못하면—등기소와 법원이 견제해야 가지고 있는 집문서가 견제하지—땅문서, 집문서가 무엇에 근거해서 효력을 발생하조 정부가 빼앗아서 넘어가면 그것은 휴지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고려신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마 공산화되는 그날로 문닫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국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연대투쟁하며 지하 신학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민족인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남한을 점령했을 경우에는 모르긴 하지만 북한에 하고 있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지금 운동권 학생들도 도박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도박인데요. 문익환 목사 어떤분들은 목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하는데 눈이 4개니까 목사아니예요. (웃음) 아마 평양에서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보다도 내가 먼저 전민연의 고문이, 재야가 평양에 제일 먼저 왔다고 기고만장 했을 거예요. 북경에 왔을 때 조금 약해 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경에 왔을 때 조금 더 약해지고 상당히 초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포 공항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개선장군같이 김포공항에 못내립니까? 동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왜 얘기하지 못합

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평양에서 그 자신 만만하던 그 사람이 북경에서 동경에서 디크리센토가 되느냐는 것입니까? 지금 옥중에서는 제일 자기로 인한 연류자가 많이 생길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문익환 목사가 목사로서 평양에가서 그렇게 한번 play하는 것 흥미있게 보았어요. 한국의 적화문제가 한국기독교의 당면문제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당면문제인 동시에 한국 모든 분야의 당면문제 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앞에서 제시한 10가지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 입니다. 문익환 목사가 이번에 평양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부활주일 메세지에 —내가 녹화테잎을 입수했습니다— 고기준목사가 20분정도 설교하고 이어 문목사가 10분 동안 메세지를 전하는 가운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때에 살지 아니 했으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는 부활했는지 안했는지 자신이 없지만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분실 자살한 전태일이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태일의 그 정신이 이 공장 저 공장에 살아서 노사투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전태일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하는 논리의 메세지입니다. 그래서 저가 기장계통의 문익환 목사 평양행을 지지한 장로님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문익환 목사가 평양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최소한도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취한 action을 당신이 아느냐? 알고 지지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해서 지지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반대하느냐? 그 근거, 뿌리가 무엇이냐? 아느냐? ‘모른다’ 모르면 찬성 반대 성명 보류하라. 그런 면에서는 중국사람들이 잘해요. 중국의 대변인들 통신들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즉각 반응을 잘 안보여요. 한참후에 발표해요. 한국에는 너무 교계나 정치계가 너무 빨리 담화나 논평이라는것을 발표해서 갈팡질팡 할때가 많아요. 새겨 두었다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권에 있는 기장 장로님들께 내가 입수한 평양 부활절 예배 테잎을 이야기 했어요. 교계에서 사회, 정치, 논평을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계의 여러가지 당면과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연합협동체제의 재건, 자체강화, 권징기능 회복 여기서 불량성직자, 장로, 집사가 많다고 했는데 요즘 이 교회서 권징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난립과 교파분립 지양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Title 아래 3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사해보면 전도의 문을 막는 요인인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제화에의 부응, 기독교적 현실 참여 지향등이

당면 과제임을 제시하고 우선 첫째가 공산화 방지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타이틀 고전하는 고신교단 바람직한 좌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때도 저 한사람이 지는것이므로 절대로 확대해석이나 비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신 교단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우월감을 지양해야 합니다. 저를 만나는 다른 교파의 목사들을 만나보면 교리교단에 대한 아주 고착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주독선적이다라고 하는것입니다. 바리새적이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때에 다른 변호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기 때문에 독선이 아니다. ...기 때문에 아니라 하는것을 나열해서 쓰고 싶지만 그런말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신교단의 초대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소위 영적권위 아무도 부인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위와 순수한 신앙노선을 제대로 승귀하고 제대로 이어 받았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일리아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았느냐? 모세의 능력을 여호수아가 받았느냐가 문제예요. 제대로 받았다면 문제가 아니예요. 바톤은 받지 아니하고 옷만 바뀌었었어요. 유니폼만 고신 유니폼을 입었지 알맹이는 산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리더가 못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신이라는 간판. 그 우산밑에 있으면 다 초대 고신교단 리더와 같은 신앙의 선인들 같이 착각하고 그 우산속에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인정을 누려왔지 않느냐? 고신교단만 들어오면 갑자기 성자가 되고 갑자기 영적인 리더 상태에 들어간다는 착각이 고신교단에 한동안 팽배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제거해 가야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나를 포함하는 모든자들이 좀더 다른 교단앞에 겸손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월감을 지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하였는데 차등의식을 가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려신학이 무언데 말이에요. 은연중에 고신 우월감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앵무새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재 또는 인력양성과 포용이라는 것인데 지난번 고신 장로회에서 발행한 회보에 손봉호 박사가 장로 세미나에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손박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김장로 이야기라 그래요. (웃음) 김장로가 평소에 이야기 하던 것을 자기가 이야기 했다고 했어요. (웃음) 나는 사실 손박사가 주장하는것을 이야기한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웃음)

음)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김장로가 한거요 하고, 나는 장로모임에서 손박사가 한거요하고 피장파장으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가 인용했건 그 신문에 나온 상당한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82년 12월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실직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공장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단열재 아이스핑크라는 스티로폼보다 방습 방열에 효과있는 것을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16명에게 3천, 5천씩 투자하라고 하고, 세계은행에서 8억을 빌리고 하여 공장을 지어 가동단계에 있는데 한 경직 목사가 우리집에 와서 사무책임자로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 서울에서는 유명한 도너스 공장을 계획하고해서, 수원에서는 단열재로, 서울에서는 도너스 공장으로 재벌이 될려는 찰란대(웃음) 80노인이 오셔서 도와달라는 것을 참 거절하지 못하여 허락했습니다. 지금 그 공장이 너무 잘되어 기계에 불이날 정도로 잘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 지을때 있으면 아스피 핑크라고(웃음) 그것 주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막들어와요. 오늘 강사료 안 받으니까(웃음) 어쨌든 교계 연합 사업에 참여해 보니까 20개 교단 24 기관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100년동안 한국 교회를 이어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계획했습니다. 100주년 사업 기념 사업을 하면서 임마누엘, 여화와 이레, 에벤에셀,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 다섯말속에 집어넣어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인용했어요. 너 아니면 안된다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로 이 총회장 그만두면 다른 총회장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쓸 인재를 주신다 말이에요. 고려파에도 이런 많은 인재들을 부어주었는데 고려파가 이 인재들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빼앗겼어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파송했지요 다른 기관에(웃음) 합동을 합동되게 하고 통합을 통합되게 하고 심지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고려파야! 고려파야!'라고 합니다. 영도 제3교회에서 신앙의 뼈가 굵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다른 모든 종교들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연구하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용력을 이야기했는데 이 포용이란 그 가운데서 좀 별난 놈이 있더라도 고려파속에 별난놈이 하나 있내 하는 정도로 면도칼 대신에 일회용이던지 이회용이던지 반창고를 가지고(웃음) 사람을 아끼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웃음) 어떤분이 와이샤쓰 바람으로 설교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웃음) 우리가 분개했어요. 아! 더우면 벗어야지 말이야(웃음, 박수) 사람 좀 아껴야 해요. 멤버를 아끼는 운동이 고려파에게 일어나야 한다말이에

요 이 사람을 아끼는 운동이 일어날때에 고려파에 봄이 옵니다. (웃음) 싸늘하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양보하지 않는것 필요하지요. 양보는 하지 않더라도 포용은 해야 합니다. 왜 저사람이 저런말을 하게되었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석원택 목사님계통의 장로님들과 자주 만납니다. 석원태파 고려파도 자주 만나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시각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탈부산·경남을 하여 예루살렘 유다와 같은 문화권에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전세계로 땅끝으로 확산되어가는 고려파의 인력양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교계협동사업에 참여, 저가 100주년 기념사업에 참가 했지만 고신계통 교회가, 20개교단 24개 단체가 모여서 여의도집회 각지역에서 선교대회를 마치고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 놀라운것은, 고려파가 연합사업에 부산 경남지역을 제외한 여러지역에서는 타교단과 함께 모여 집회하는 자체가 타부시되고 있습니다. 비진리의 진영과 같이 앉아 먹는다는것은 마귀하고 같이 먹는것 아니냐하고 너무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타교파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첫째로 자신이 없어 피한다. 자신이 있어 보세요. 자신이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포용력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것을 안 빼앗길려고 애를 쓴다 말이에요. 우리 고려파 사람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별로 속에 든것도 없고 아는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망신당할까 싶어 안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려파의 취약점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는 무어나하면 우리가 잘못 배웠다. 우리의 분위기가 잘 못되었다 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잘못 나가면 형제여! 이것이 복음이다. 해가지고 교사의 시각으로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고 슬슬 쫓무니를 빼 해버린단 말이에요. 스승으로서의 소크라테스와 스승으로서의 예수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 생각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스승인데 타교파들이 모인곳에 가서 진정 성경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면 그들을 바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때문에 나는 이 교단 연합사업에 고려파가 각교단에 그야말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회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종류의 모임같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것은 몰라도 전파만 하면된다. 전파만 하고 도망쳐서 와 오래 앉아 있으면 혹시 말이 궁하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똑바로 나팔을 불고, 희미하게 나팔소리가 기상나팔소리까지 취침 나

팔소리지 모르게(웃음)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고려파에 속해있는 우리의 맨과워가 교단 연합사업에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분석해 보니까 그러한 두서너가지 요인이 있지 않느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 또 참여했다고 돌아오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책벌을 받을까 싶어서 또 그런게 있어요. 성공회 신부들과 만나가지고 실컷 얘기했다 합시다.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의논했다 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시찰회나 노회가서 천주교 신부들과 같이 밤을 세웠는데 저 목사 어떻게 할까? 그런 안전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고려파의 분위기를 봐서 그런것도 좀 탈피하자 이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 내용이 문제지.

그 다음에 그다섯번째는 개혁주의 신앙신학과 확산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성경을 낭독 했습니다. 그 젊은 디모테에게 이야기한 그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다 다시 리와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어냐 허탄한 신앙을 내 버리라 지금 문선명의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문선명도 얼마후에는요 얼마후에는 자기가 할말이 없으니까 이제 할말이 없으니까 이 이상 더 할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만 남아있어요. 내가 예수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것까지 잘 안먹히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말하게 되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박태선이 참 뭐 생수팔고 뭐뿔해가지고 뭐 발 씻는 물 팔고 뭐 인수하고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온갖 말 다하고난 다음에 할말이 없으니까 내가 천부교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 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선명, 박태선은 누가 키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요. 문선명, 박태선은 연설자입니다. 박태선이 집회, 남산 집회, 한강 집회, 부산 집회, 마산 집회 마지막 축도는 누가 했습니까? 기성교회 목사가 했다고요. 박태선집회 초기에 그때영을 식별하는 그 영력은 상실한 합동파 통합파 이런 사람들이 축도를 했어요. 참 감사한것은 고려파목사가 축도한 것은 거의 없어요(웃음). 내가 거의없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고려파가 신앙적 우월을 우월감을 조금 가질 수도 있다는 근거가 되지만도 그것이 또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쩔다는 건가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예수와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망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연습하라 육체에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뉘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자들에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기도합시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진로와 신학생의 자기 준비

허 순 길
(고려신학대학원장)

“신학은 교회의 딸이다(Theology is daughter of church)”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는 곧 신학은 교회의 사랑을 받고 교회 봉사를 위해 있다는 뜻이 되겠다. 신학과 교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신학교는 신학을 하는 곳이다. 신학교는 교회의 배경없이 건재할 수 없고, 교회는 신학교의 봉사없이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교회는 신학교를 설립, 운영, 감독 해야 하며 신학교는 건전한 말씀의 봉사자의 양성을 통하여 교회를 봉사해야 한다.

I. 고려신학교의 자취

1:1 신학교의 배태

고려신학교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종들에 의해 일제의 감옥에서 배태되었다. 일제 말 감옥에서 일본 제국의 패망이 다가옴을 직감한 한상동, 주남선 목사는 주님의 뜻으로 옥에서 풀려날 때를 생각하며 허물어진 한국 교회의 재건 방안을 구상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를 설립하여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참된 교역자를 양성하는 길이었다. 이 종들은 바른 신학교육이 교회 재건의 최선의 방법임을 확신 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난 날에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얼마나 파괴적이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침투한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생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2 신학교의 설립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고 종들이 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 교회와 신학계의 현실은 바로 폐허 그것이었다. 교회에는 회개를 통한 교회 개혁운동보다 지난 날 일제에 아부하거나 타협한 자들, 심지어는 일본의 태양신 앞에 경배한 배교자들이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신학계는 개혁